

들어가면서.

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인 이야기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공히 나타난다(마 14:13-21; 마 6:32-44; 눅 9:19-17; 요 6:1-15). 여기에 쓰인 감사드리다/축사하다는 말이 나중에 성만찬 예식에도 나타나지만, 요한복음에는 그런 예식이 없다. 그 대신에 6 장에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다. 이를 어떻게 이해할까?

A. 5 병 2 어

1. 문제제기: 사건의 배경, 이유

- 막 6:35-36 늦은 밤, 한적한 곳 (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움)
- 요 6:6 빌립을 시험하려고=> 창 22:1 (cf. 약 1:13-14). 믿음을 엿보려고
- 안드레, 빌립 (1:43-45; 6:6-8; 12:22)

2. 보리떡 다섯 개=> 보리떡은 당시에는 가난한 자의 양식 (왕하 4:42-44)

3. 감사드림(εὐχαριστέω, give thanks=> Eucharist)

- 오병이어(마 15:36; 막 8:16; 요 6:11); 성만찬(마 26:27; 막 14:23; 눅 22:17, 21; 고전 11:24)
- 개역한글=> 축사하다; 표준새번역, 공동번역=> 감사드리다. (축사를 통한 기적보다는,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)

B. 떡과 담화(6:25-59)

1. 떡—신학적 의미

- 요 6:27.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,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. 참된 양식은 하느님의 일=> 요 4:34.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...(마 4:4; 눅 4:4)
- 질문. 1)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일을 하나; 2) 표적이 무엇이나
 - 예수를 믿는 것이 하느님의 일(29절). Q: 예수를 믿음이란? (그의 삶을 본받는 것). 표적은 이런 믿음을 위한 것.
 - 오병이어 그 자체가 표적=>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(오병이어의 참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).
 -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=> 출처와 사명, 곧 하느님으로부터 (문자적 표현이 아님)

2. 백성/제자들의 불평

- 생명의 떡이 문제가 아니라,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점. Cf. 만나(출 16:4, 15)
 - 예수는 사람인데, 어떻게 떡이냐(문자적 이해)
 - 상징적 이해=> 예수는 하느님으로부터. 그의 뜻, 행사, 일, 표적
-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(47, 54)=> 가지고 있다=> 누리고 있다. 현재형/현재진행형
- 살과 피에 대해
 - 피는 못 먹는다. 피는 생명을 상징(레 17:10-14).
 - 살(σάρξ)보다는 몸이라는 표현=> 이것은 내 몸(σῶμα)이다 (막 14:22; 고전 11:24)
 - Wisdom motifs (잠 9:4-5; 집회서 24:21 >>요 4:13-14)
 - Dionysus Cult와 요 6:53

3. 성만찬(Eucharist)과의 관계

- 문학적 구성에 있어, 마지막 만찬 보다는 오병이어와 관련=> 제의적이라기보다는 축제요 일상의 삶
- 유대전통 속에서=> 모세와 예수; 사람들의 불만(murmuring, 출 17:3; 요 6:43, 61). 예수가 하느님의 참 대변자(revealer=> exegete, 요 1:18). 오병이어는 그런 의미에서, 오경의 핵심

생각해 보기

1. 요한복음 6:57. 내가 아버지로 인해 (혹은 위해)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(혹은 위하여) 살리다.
2. 마지막 날에 부활 (요 6:39, 44, 54; 11:24<< 단 12:2). 다른 성서에는 없는 표현. 어떻게 이해할까